

## ▶ 아동

## 쉼터를 찾은 여중생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우 의 정\*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사례는 성폭력과 또래폭력으로 인하여 쉼터를 찾은 여중생의 모래놀이치료사례이다. 내담자는 당시 성폭력을 당한지 한 달만에 학교를 휴학하고 타 지역에 있는 쉼터에 오게 되었으며, 성폭력 및 또래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들을 치유받고 앞으로의 거취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기관에서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에 치료자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에 내재되어있는 불안, 갈등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충분히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내담자가 상처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내적으로 성장하여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였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와 소품을 이용하여 내면의 상처 및 문제행동을 치료해가는 심리치료의 한 기법으로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면 내담자의 자기 치유력이 스스로 활성화되어 모래상자 속의 작품으로서 표현되는데, 융의 심리학을 이용하여 모래상자의 이미지를 이해하게 된다. 특히 모래놀이치료는 상징을 통해 시각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담자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담자는 안정되고 보호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무의식의 체험은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들을 풀어내고 점차 자신의 자아를 구축해가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감소되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 치료자는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MMPI, 지능검사, HTP KFD, SCT 등의 심리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유롭게 보호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치료적 상황 하에서 10회기에 걸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내담자는 어린시절부터 많은 trauma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졌으며 회기를 진행하면서 퇴행과 갈등, 불안 등의 심리적 상태가 모래상자 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졌다. 차츰 성폭력 사건에 대한 trauma까지 언급이 되어졌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표현하였으며 긍정적인 적응을 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의 태도에 비해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내적으로 자아가 튼튼해진 증거라 할 수 있다. 첫 회기 때의 상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해결해가야 할 문제들이 10회기를 거치는 동안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변화 되어감을 볼 수 있었다

성폭행과 또래폭력 등으로 상처를 받고 쉼터를 찾은 여중생의 사례를 통하여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